

‘창업하기 좋은 전북’ 민간 생태계 본격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도, TIPS 운영사 6곳 첫 선정 벤처펀드 2,690억 조성 추진 외국인 창업비자도 본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 중심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창업하기 좋은 전북’ 실현을 목표로 △민간주도 창업지원 △공공실증 기반 판로 확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벤처투자 인프라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도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팁스(TIPS) 운영사 6곳을 선정하고, 유망 스타트업 60개사를 발굴·육성하는 전략에 착수했다. 팁스는 민간이 1억 원 이상 선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 17억 원까지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대표 창업 프로그램으로, 각 운영사들은 3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한 기업을 중심으로 TIPS 추천·육성에 나선다.

창업지원 공간도 확대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전주한옥마을에 민간 스타트업 지원기관들이 집적된 ‘키움공간’을 개소한 데 이어, 익산역 인근에 식품·바이오 특화 키움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 제품의 실증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형 스케일업 실증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된다.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예비·초기·도약단계 기

업 381개사에 총 191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청년혁신가(33팀), 전북형 창업패키지(13개사), 창업도약패키지(19개사) 등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 판로, 투자유치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신보 등과 연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금융지원도 병행되며, 제도전 성공패키지(4년간 92억 원)와 중장년 창업 특화센터(5천만 원)를 통해 재창업자와 중장년 창업도 지원하고 있다.

전북 벤처 투자 생태계 육성도 가속화되고 있다. 도는 올해 총 9개 펀드를 통해 2,69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3개 펀드 850억 원을 조성 중이며, 6월까지 전북 벤처펀드를 운용할 6개 투자사를 추가로 선정해 연내 펀드 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 전체 벤처펀드는 총 31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사업도 신규 추진돼, 유망벤처·스타트업 30개사를 모집해 6~12월 간 IR 라운드 6회를 개최하고, 투자사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킹과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창업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도 진행 중이다. 도는 중기부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와 연계해 2023년 5개사, 2024년 3개사, 올해는 4개 유망 해외 스타트업을 유지하며, 대체식품·스마트팜 등 지역 주력산업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숯품도 전주’ 세계 1위 숯품드라마 플랫폼 ‘릴숯’에서 전주를 배경으로 한 국내 최초 숯품드라마 ‘구미호, 운명의 짝’이 방영되고 있다. <사진=릴숯>

전주 배경 국내 첫 숯품드라마 ‘구미호’ 세계 방영

영화드라마 이어 숯품 인기 ‘릴숯’ 세계에 전주 소개 기회

전북자치도 전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글로벌 인기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썩속 속았수다’, ‘당신의 맛’ 등에 이어 세계 1위 숯품 드라마 플랫폼에서 방영이 시작된 국내 최초의 숯품드라마도 촬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뜨거운 관심을 사고 있다.

전주시는 세계 1위 숯품 드라마 플랫

폼인 ‘릴숯’(Reel Short)에서 지난 4일부터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우리나라 최초의 숯품드라마인 ‘구미호, 운명의 짝’이 방영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3월부터 릴숯과 대한민국 최고의 숯품드라마 제작사인 ‘문프로덕션’과 ‘원구름’과 손잡고 전주 곳곳이 배경이 된 숯품드라마를 최초로 공동 제작했다.

이 드라마는 릴숯에서 2억 뷰를 기

록한 인기작 ‘Fated to My Forbidden Alpha’를 원작으로 인간과 초자연적 존재 간의 운명적인 사랑과 갈등을 한국적인 스토리로 다뤄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작품의 촬영지로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의 여러 명소가 선택돼 드라마를 통해 전주의 맛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게 됐다.

이 숯품드라마를 통해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전주의 매력들이 공개되면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해부터 전주에서 촬영을 마친 ‘당신의 맛’이라는 드라마가 최근 방송을 시작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번 ‘구미호, 운명의 짝’ 숯품 드라마도 전주에서 촬영한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민주, 총리산하국가수사위 구성 “검찰개혁 이번엔 반드시 완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공정사회 포럼(차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현행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서 공소만을 전담하도록 했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실시하고, 국무총리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검찰청의 현 1천200여명의 검사 중 수사인력은 사실상 경찰이 흡수하고,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가 사실상 수사를 총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면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여산휴게소,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새출발

11일 휴게소본관서 간판 제막식 이춘석 의원, 명칭 변경 이끌어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11일 호남고속도로 익산미륵사지휴게소 상행선 본관에서 간판 제막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익산시 유일의 고속도로 휴게소인 익산미륵사지휴게소는 1976년 개장 후 여산휴게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 명칭은 익산 지명과 지역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



이춘석 의원

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0년 익산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가 명칭 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을 바탕으로 익산시는 명칭 변경을 본격 추진했지만, 현실적인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익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명칭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주무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직접 협의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한국도로공사의 전향적인 결정을 이끌어내며 마침내 명칭 변경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를 넘어, 세계유산 미륵사지와 익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JBT

전북타임스신문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자연사랑·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대회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타임스신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사랑·자연보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모 기한: 2025년 5월 27일(화)~6월 20일(금)

▶참가 대상: 전북자치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작품 주제: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

▶공모 부분: 그림(만화 포함)

▶용지 규격: 8절지 크기(B4 용지)

▶접수 방법: 우편 및 방문(학교별 단체 및 개별 접수)

▶접수처: 우)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5층

문의 (063)282-9601, 9604 / jbn8800@daum.net

▶입상자 발표: 2025년 7월 11일(금)

▶입상자 시상: 2025년 9월 13일(토)

♣ 시상 내역 ♣

대상(3명)=전북자치도교육감상·전북자치도지사상·전북자치도의회의장

최우수상(4명)=전주시장상(2명)·전주시의회의장(2명)

우수상(20명)=(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 장려상(50명)=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 특별상(3명)=국회의원상

의회 중계식

김대중 도의원 “대한민국 대표산업, 전북에는 없다”

기업유치정책 재점검 요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도의원(익산 1)은 11일 제419회 정례회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비판을 쏟아냈다.

김의원은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에 대해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전북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오히려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대광법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



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면 도로 50%, 철도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우선해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 국비 100%로 지방비 부담 없이 광

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도가 기업유치 실적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며 도 기업유치정책방향을 재검검할 것을 요청했다.

김의원은 끝으로 김관영 지사에 게 “전북 내 균형발전을 위해 전주권에 위치한 도 산하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잇따른 분양가 상승에 도민들은 분양가 결정내역 자체를 모른다며 깜깜이 분양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태 기자

임승식 도의원 “인공지능돌봄인형 실효성 의무”

보여주기·예산낭비 정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통해 전북자치도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2023년 3월 도지사 지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세무 계획이 수립되고, 같은 해 7월 기기 보급이 시작되는 등 매우 빠르게 추진됐다”며,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



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에서 실시한 2023년 자체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역력과 우울감 개선 폭은 평균 1점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결과도 도출됐음에도, 2024년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사업을 지속했다.

이에 임 의원은 “총 5억 1천 3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 분석 자료와 예산 대비 효과 수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업체 선정부터 사용자 관리, 회수·수리까지 모든 과정이 시군 치매안심센터에 전가됐지만, 이를 위한 명확한 운영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인형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보다 시급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돌봄 인력 확충 등에 사용될 수 있었던 재정 자원이 실효성 없는 사업에 투입된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정종복 도의원 “인센티브 개선 등 대대적 쇄신” 촉구

공공기관 이전 성과 지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의원이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종복 의원은 전북 도정과 관련해 김관영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된 부실한 성과를 지적하며, 전북의 강점을 반영한 인센티브 마련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



를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은 “기관의 이전 성격에 따른 유치 활동 다양화,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등 대

대적인 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종복 의원은 “민선8기 이후 총 3건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고위공무원 특성상 이들의 이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행

정공백도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감사위의 조사 기간을 줄이는 등 신속한 후임자 발령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과 서서학동, 평화1-2동의 경우 인구 7만명, 학생수 5천명에 달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는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며, “동등한 교육권과 이동권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감의 공감과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김영태 기자

정동영 의원, AI G3 강국 전략 조찬포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시즌2)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이 11일 오전 7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

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난·안전 분야에서 AI의 구조적 변화와 역할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정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AI의 입지를 확인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를 대표해 송상훈 과기정통부 실장은 AI 관련 사업들이 1차 추경에 반영되었고, 일부는 2차 추경 편성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반영되지 못한 과제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AI 기반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 있게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는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토론하는 마무리되었다.

/정재근 기자

새 정부에 바란다

소재철 “지역균형 개발·발전 약속 지켜야”

“전북을 국가 경쟁력 재건 중심으로 삼아야”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의 쇠퇴와 수도권 과밀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지역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균형과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십 년간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지 못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제는 그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전북을 단지 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재건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때다.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건설’이다. 전북을 위한 건설은 지역의 미래를 건설하는 작업이며, 이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

△새만금, 국제사업 모델로 재탄생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로 손꼽히는 새만금은,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 차례의 어려움을 지연 겪었다. 하지만 이제 새만금을 단순히 간척지 개발로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모델’로 재정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만금은 그 자체로 미래 도시를 위한 중요한 실험장이 될 수 있기에 스마트 인프라와 친환경 건축, 재생 가능 에너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돋움해야



소재철 회장

기 완공과 함께, 수변도시와 배후 산업단지의 민관 협력형 개발모델 설계가 중요하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선투자 및 복합 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다.

△광역건설 인프라 구축
전북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간의 광역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제는 전라선 고속철도(KTX)와 서해안 고속도로의 확장, 군산항의 국제 물류기지화 등 전북 내 교통망을 전국과 글로벌 연결망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러한 교통·물류 인프라의 확장은 산업 유치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설산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
건설산업은 단순한 시공을 넘어 수 많은 관련 산업과 직업군을 포함한 복합적인 분야다. 전북은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에,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곧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과 직결된다.

지역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 우선 참여 제도를 확대하고, 전북형 청년

건설기술인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형 건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도시재생과 정주환경 개선

전북의 많은 도시들은 노후화된 도시 기반시설과 쇠퇴한 구도심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확대하고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로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역사 문화시설 리모델링과 공공도서관, 청년주택 같은 생활 SOC 복합시설을 확충해,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

전북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건설 특화지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 건설과, 전통 건축기법과 현대기술을 결합한 로컬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새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건설 통한 대담한 투자

전북의 발전은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건설을 통해 산업을 짓고, 사람의 삶을 짓고, 도시의 품격을 짓는 것이 바로 전북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는 전북을 국가 경쟁력 재건의 중심으로 삼고, 대담한 투자와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전북을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

전북쇼핑트레블라운지, 도내 유일 무인 환전 서비스

충경로251층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 충경로 251층 전북쇼핑트레블라운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쇼핑트레블라운지에 무인 환전 키오스크 ‘와우패스(WOWPASS)’를 설치하고 지난 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무인 환전 서비스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자유 여행객이 증가하고, 주말 환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도입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이 아닌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보다 낮은 환전 수수료를 제공하는 점이 큰 장점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무인 환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전북쇼핑트레블라운지에 설치된 무인 환전 키오스크를 통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충전 가능한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도내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총 16개국 통

화(원화포함)를 간편하게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와우패스 무인 환전 키오스크 도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내 관광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기요금 아끼는

실천 절약 팁



시간대별 요금제

적극 활용 하기



스마트폰 콘센트, 절전

멀티탭 사용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가전 사용



냉방 . 난방기 적정 온도

유지

전북도내 식품산업 협력 길 넓힌다

지역식품 7+1 협의회 개최 정책·혁신 아이디어 공유 기관 강점 살린 협업 이어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식품 연구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지역식품 연구기관 7+1 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정책 동향과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10일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렸으며, 지난해 10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월(짝수월) 둘째 주 화요일에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실무 협의체의 일환이다.

회의에는 도내 7개 시·군 출연 식품연구기관(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정읍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진안홍삼연구소,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고창식품산업연구소)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총 8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회의·행사 일정 등을 공유하며 전북 식품산업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농식품 분야의 특례 발굴 플랫폼 구축, 시·군 연구기관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 등을 주제로 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도 관계자는 “7+1 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강점을 살린 실질적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는 10일 도내 식품 연구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지역식품 연구기관 7+1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전북농협은 11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도 인식 확산과 기부 동참 유도 및 쌀 소비촉진 확대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고향사랑기부·쌀 소비촉진 캠페인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서 농산물·식혜 나누며 홍보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11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를 방문해 고향사랑 기부제도 인식 확산과 기부 동참 유도 및 쌀 소비촉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농협만의 ‘고향사랑의 날’ 행사로 이정한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연원섭 한국전력 전북본부장, 송성기 전력사업처지회 노조위원장, 김상성 기획관리실지회 노조위원장과 및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 출근길 한전 임직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리플렛과 관

내 농산물 및 식혜를 나눠주며 제도 및 쌀 소비촉진 홍보에 나섰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전북농협은 매월 자체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하여 특색있는 홍보와 더불어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 추진중이다”며 “쌀 소비진작과 더불어 열악한 농촌지역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양 기관은 지난 3월 영농철 및 수확기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희망방산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가 맞춤형 및 체계적인 일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17년 만 완화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개선 사업장 가입 확대 기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환)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됐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월 8일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건설 현장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여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도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을 위한 1개월 판단기준이 어렵다고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새로운 판단기준 개선으로 사업장의 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환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녹색제품 의무구매 실효성 높인다

14개시군 녹색구매 역량교육 지속발전·실현행정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녹색제품 의무제 역량강화 교육 및 기초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의 녹색구매 확산과 제도 이행 역량 제고를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리셋컴퍼니(주) 주관으로, 도 및 14개 시군의 녹색제품 구매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함께 녹색구매 실적 향상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녹색제품’이란 제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친환경 제품이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품목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녹색제품은 사용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는 것은 물론, 환경복원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며, 에너지·수자원 절감과 폐기물 감소 등 소비자 관점에서도 경제적 이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녹색제품 의무제도 소개 △구매방법 및 유의사항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와 실적관리법 △녹색구매 확대 전략 등 실무 중심 내용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자체별 구매 실적 공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방향 모색 등 현장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 피드백이 활발히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교육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용역 및 공사 계약서, 시방서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문구를 명시하는 등 실행력을 높인

조달지침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협업과 실적 점검을 병행해 녹색구매 확대와 제도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도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공공부문 선도 실천 모델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한순옥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녹색제품 구매는 환경보호를 넘어, 공공부문이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할 탄소중립 과제”라며 “도와 시군이 함께 녹색조달 체계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돌발해충 미국선녀벌레 천적 선녀벌레집게벌 도입

방제 효과 현장 평가회 열어 감 재배 농가 현장 실증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12일 전남 장성에 있는 감 재배 농가에서 돌발해충 ‘미국선녀벌레’의 천적 ‘선녀벌레집게벌’ 활용 방제 효과를 소개하는 현장 평가회를 연다.

현장 평가회에서 감 재배 농가는 올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협업 농장으로 선정돼 선녀벌레집게벌 방제 효과를 현장 실증 중이다.

이날 농업인과 관련 연구자 등 참석자들은 미국선녀벌레와 천적인 선녀벌레집게벌 활용 기술과 현장 실증 연구 결과를 공유한 후 농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미국선녀벌레는 2005년 경남 김해 단감 농가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해 감, 복숭아, 블루베리, 키위 등 300여 종 이상의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26개 시군 1만 1,134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유충과 성충이 집단으로 즙을 빨아 작물을 약하게 만들며, 배설물인 감로를 분비해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국제농업기술 협력으로 이탈리아에서 미국선녀벌레



의 천적 ‘선녀벌레집게벌’ 600마리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로 대량증식에 성공해 지난해 1만 4,264마리를 생산했다.

선녀벌레집게벌은 미국선녀벌레 어린 유충(1~2령)을 잡아먹거나 3~5령 유충에 기생해 미국선녀벌레를 방제한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29개 지역에 대량 증식한 선녀벌레집게벌을 방사한 결과, 기생률이 최대 30% 이상으로 나타나 미국선녀벌레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 말까지 미국선녀벌레 피해를 본 전국 10개 농가를 대상으로 천적을 활용한 미국선녀벌레 방제 현장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해충잡초방제과 정수경 과장은 “농업인에게 천적 정보를 제공하고 천적 정착 여부와 현장 실증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한전, 전기산업엑스포서 홍보관 운영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삼일동안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에 참여해 홍보관을 운영한다. <사진=한전>

비수도권 최대규모 전문 박람회 ESS 통합관리시스템 소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삼일동안 대구 엑스코 서관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에 참여해 홍보관을 운영한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전기산업엑스포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전기설비·전력산업 전문 박람회다.

올해 행사에는 발전·송배전·변전기자재·원자력산업 등 관련 기업 110개 업체가 참여해 4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에너지 안전을

이끄는 국민의 KESCO’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사의 역할을 소개하고, 미래 에너지 안전 전략 등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공사의 주요 업무와 안전요령을 터치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최근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고민을 덜기 위해 채용관련 Q&A도 진행한다.

실제 최근 입사한 직원이 행사장에 상주하면서 구직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태 기자

국산 유채유, 식용유 시장 자립 ‘새 대안’

농진청, 국산 유채유 소비 독려 재배 확대 식용유 자급률 향상

기능성 물질이 풍부하고 풍미가 우수한 국산 유채유가 외산 중심의 국내 식용유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식용유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산 유채유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식용 유지류 연간 판매액이 3백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판매액과 생산 규모가 콩기름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유채유는 화학적 추출 방식으로 착유하는 수입 카놀라유이며, 저온 압착 추출 방식으로 생산되는 국산 유채유 생산은 저조하다.

국산 유채유는 화학적 추출이 아닌 저온 압착 방식으로 생산돼 영양성분 손실이 적고 풍미가 우수하다. 농촌진흥청 분석 결과, 국내 품종을 이용해 저온 압착한 국산 유채유에는 ‘식물성 스테롤’을 비롯해 ‘토코페롤’, ‘카놀롤’, ‘카로티노이드’ 같은 기능성 물질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저온 압착 유채유는 다른 압착 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연점이 높아 다양한 요리에 쓸 수 있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은 유채유 생산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기존 육성 품종으로는 ‘중모7001(상품명 ‘황운’), ‘유려’ 등이 있다. ‘유려’는 쓰러짐과 균해병에 강해 재배 안정성이 높다. 지난해에는 ‘금별’, ‘백운’, ‘다강’을 개발해 품종 출원했다. 이들 품종은 모두 에루스산을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아, 식용유 생산에 적합하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유채유 생산 확대를 위해 전남 영암·해남·나주·진도, 전북 익산, 제주 등 7개소에 총 430헥타르(ha) 규모의 유채유 생산용 거점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우수 품종 보급과 재배-수확-가공 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남 해남·영암·진도 등 4개소에 유채유 착유 공장을 설립, 국산 유채유 대량생산 기반도 마련했다.

생산 유채유는 학교 급식에 공급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되고 있다.

현재 국내 유채 재배면적은 약 5,000헥타르에 달하며, 대부분은 경관용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유채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씨앗을 수확해 기름을 짜고 남은 유채박은 비료나 사료로 활용하는 ‘유채 자원순환 모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신협, 창립 59년 만 자산 10조 달성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는 지난 5월말 기준 전북신협이 자산 10조 원을 달성해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강연수 본부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신협 전북지역협의회 최태일 회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행사에는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직원 일동, 각 지역평의회장 5명, 전북상임이사협의회 오종근 회장, 전북상임감사협의회 안종상 회장, 전북실무책임자협의회 황민석 회장이 함께했다.

전북신협은 최초조합인 이리신협이 1966년 처음 태동한 이래 이리성심신협이 출자금 6,303원, 가입금 2,400원 총 8,703원으로 인가된 것을 시작으로 1995년에는 114개 신협으로 자산 1조

원을 최초 돌파했고, 2025년에 70개 신협, 자산 10조 원, 조합원 51만 명 규모로 성장했다.

창립 59년 만에 자산 10조원을 달성한 전북신협은 관내 13개 시·군에 132개 영업점을 두고 있다. 2025년 5월말 자산 10조 742억을 달성하며 전국 12개 지역본부 중 자산 10조 원을 달성한 8번째 지역본부가 됐다.

전북신협은 현재 6개 지역으로 완산평의회가 자산 3조 9천7백억 원, 덕진·완주평의회가 자산 2조 1천 360억 원, 그리고 군산평의회(1조 2천억 원)와, 익산평의회(1조 1,867억 원)가 자리하며, 동부평의회와 서부평의회가 각각 6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희망2025 나눔캠페인’ 익산시, 우수지자체 수상

익산시가 지역사회의 따뜻한 기부 참여를 이끌어 내며 나눔문화 확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11일 전주시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희망2025 나눔캠페인’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했으며, 캠페인 기간 나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지자체·공무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익산시는 수상의 영예와 함께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비는 위기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한 가정방문 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인정

전북도 표창 수상 임산물 활용 원예활동

정읍시가 ‘뇌건강 깨우는 자연의 산물’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관리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시는 11일 전주 그랜스힐스턴호텔에서 열린 ‘2025년 광역·치매안심센터 발전 워크숍’에서 2024년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14개 치매안심센터가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치매관리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읍시는 지역 특산 임산물을 활용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뇌건강 깨우는 자연의 산물’을 사례로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뇌건강 깨우는 자연의 산물’ 프로그램은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참여자들의 흥미와 인지기능을 동시에 자극



정읍시는 11일 '2025년 광역·치매안심센터 발전 워크숍'에서 2024년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사진=정읍시>

하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한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관리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정읍시의 치매관리 서비스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 숏폼 제작 지원

현장 맞춤형 영상 콘텐츠 소상공인 브랜드력 높여

군산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숏폼 제작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 콘텐츠(숏폼)를 통해 소상공인의 브랜드 및 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산시청 동호회인 ‘라이프 필름’이 중심이 되어 기획·촬영·편집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신청 접수는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5개 관내 업소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중 ‘배달의명수’ 신규 가입 업소는 9곳, 기존 가입 업소는 10곳이며 아직 미가맹된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가맹 안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촬영과 영상 제작이 진행되며, 완성된 영상은 온라인 SNS 계정과 ‘배달의명수’ 홍보 채널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군산시 이현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

번 지원사업은 단순히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 스스로 콘텐츠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의 역량과 시민의 참여를 결합한 민관 협력형 사업을 지속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마케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공공배달 앱인 ‘배달의명수’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자생적인 상권 활성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전면 시행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월 1만원 소비 쿠폰 지급

정읍시가 위메프를 통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외식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지난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위메프오는 중개수수료가 약 2%로 민간배달앱의 2~9.7%에 비해 훨씬 낮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돌려주는 친소상공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소비쿠폰 정책의 중심 채널로 활용된다.

지원 방식은 간단하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위메프로 2만원 이상 주문을 세 차례 완료한 소비자는 다음 달 10일쯤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자동으로 발급받는다. 1인당 월 1회에 한해 혜택이 주어지며, 쿠폰은 다시 2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6월 1일부터의 이용 내역도 소급 적용되며, 매월 최대 3회까지의 결제 실적만 인정된다.

이 중 실적이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돼 누적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3회를 초과한 주문은 이월되지 않는다. 기존 금액은 메뉴와 배달 대행료를 포함한 총액이며, 앱 내 할인쿠폰이나 포인트는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한

다.

시는 소비쿠폰 지원과 함께 자체 소비촉진 이벤트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가맹점에는 하루 1회 최대 2000원, 전통시장관에는 최대 4000원의 배달비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정읍사랑상품권 결제 시 구매금액의 5%를 페이백 포인트로 적립한다. 또 전체 결제금액의 1%를 페이백 포인트로 돌려주는 혜택도 마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는 실질적 할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수익 증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육군부사관학교, 주민 복지 증진 ‘맞손’

문화·체육시설 개방 협약 학교 내 도서관·체육관 등

익산시가 육군부사관학교와 손잡고 지역 복지 증진에 나섰다.

익산시는 11일 여산면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문화·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사관학교가 보유한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민·관·군의 상생 협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개방 대상 시설은 학록도서관, 계백관(체육관), 국립전사박물관, 계백공원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이다. 익산시와 부사관학교는 협약 이후 세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설 개방에 나설 계획이다.



시설은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은 간단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작성하면, 위병소 옆 별도 출입구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경중 학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대가 지역사회에 보다 열린 모습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익산시와 상생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백정기 의사 순국 91주기 기념 좌담회

19일 백정기 의사 기념관

윤봉길, 이봉창과 함께 대한민국 3의사로 불리는 백정기 의사의 삶과 정신을 조명하는 좌담회가 정읍에서 마련된다.

정읍시는 구파 백정기 의사의 순국 91주기를 맞아 오는 19일 오후 4시, 영원면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서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연다.

이번 좌담회는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 이흥로 사무국장의 선양사업 추진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일학회 이도형 회장이 선양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담회는 아흐K로컬콘텐츠연구소 백남이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도 함께 이어진다.

시는 좌담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기관과 단체에 전달하



고,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백정기 의사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좌담회 관계자는 “정읍시와 기념사업회가 꾸준히 기리고 있음에도 백정기 의사의 이름은 윤봉길, 이봉창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아쉬움이 컸다”며 “이번 좌담회를 통해 백정기 의사의 위대한 항일 활동이 보다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의회, 청렴·투명한 의회상 건결음

10일 의회운영위 개최 불합리한 규정 일괄 정비

익산시의회의가 자치법규에 내재해 온 불합리한 규정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의회 운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등 5개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정한 공직 심

사를 위한 외부 위원 위촉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 위촉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 △여비 부담 수령시 환수금액 강제징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방정 제한 시 사유와 근거 제시 규정 신설 등이 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익산시의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 속에 성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 롯데몰 연계 팝업부스

지역 창업기업 판로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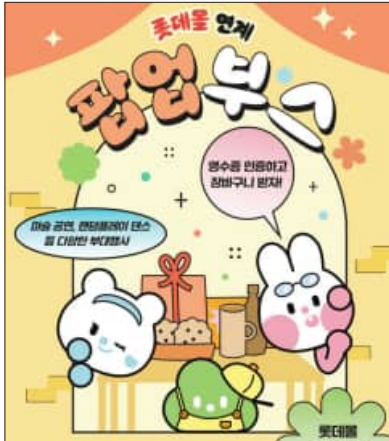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가 ‘롯데몰 연계 팝업부스’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롯데몰 군산점 1층 비단뜰에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창업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12개 사)와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3개 사)에서 선발한 총 15개 창업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군산의 특산물인 건새우, 냉동 새우살 등 수산물, 보리·쌀을 이용한 수제 맥주와 블렌딩 차, 재활용(리사이클링) 의류 등 청년 창업가들의 창의적인 제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회로 방문객의 관심을 끌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



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팝업부스 행사 외에도 △3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장바구니 증정 이벤트, △풍선 아트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해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이 즐거운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복지사각 해소 위해 전수조사 돌입

1552세대…조기 발굴

정읍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52세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다.

조사 대상은 2024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가 중지된 1213세대와 고독사 위험군 339세대다.

시는 이들 세대의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 유무 등을 재검토해 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보장급여 재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지원 필요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세대에는 기초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포함한 전

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공공자원은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 민간지원도 연계한다.

이와 함께 모든 조사대상 가구에는 시가 자체 제작한 ‘희망나눔 통통꾸러미’를 지원해 소통과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연계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세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K-관광섬 방축도 ‘내 마음의 방파제’ 주민 사진전

군산시는 고군산 K-관광섬 주민역량 강화사업의 하나로 방축도 주민 사진전 ‘내 마음의 방파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군산 K-관광섬 용역사인 모라비안앤코와 함께 기획한 행사로 방축도 주민들이 직접 필름 카메라를 들고 섬 곳곳을 담아낸 주민참여형 사진 아카이빙 전시이다.

전시에는 주민들의 애정 어린 시선이 깃든 마을의 일상과 풍경, 사람들을 담은 총 50여 점의 사진이 소개되며, 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섬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남원, 미래형 스마트농업 전진기지 도약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고시 938억 투입, 6대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남원시 대산면 일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는 총 60.4ha 부지에 5년간(2025~2029년) 938억 원을 투입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스마트 원예단지, 스마트 교육·실증단지 등 6대 핵심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본 지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원예산업 기반과 전국 최대 통합마케팅 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력해 생산-유통-가공-교육의 전주기 스마트농업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



남원시 ECO스마트팜 산업지구가 전북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고시됨에 전주기 스마트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착을 지원한다. <사진=남원시>

히 청년 창업농 50농가 유치, 관련 기업 15개사 유치를 목표로 스마트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며, 스마트농업 농가의 소득 30%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퍼시픽투자운용 등 민간 파트너와 협력해 대규모 창업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APC 및 실증단지 등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정착을 지원

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주민 소득 증대 기반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를 포함한 이번 3개 지구(남원, 진안, 고창)는 총 2,155억 원이 투입되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의 첫 사례로, 향후 농업의 첨단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미생물 기반 식품산업 육성 시동

도 기능성식품 자유특구 지정 GMP 공유공장 실증 본격화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향후 3년간 미생물 기반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공유공장 운영 실증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실증사업’은 기능성 식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와 공정을 다수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유모형을 실증하는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 절차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성 소재의 실용화 가능성부터 기존 규격 설정, 제품화까지 기능성 식품 개발의 전 과정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순창군은 특구 내 지식산업화센터에 입주한 △한품제약, △성마리 오농장, △바이오타 등 3개 기업과 협력해,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의 전문설비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및 홍국소재 건강기능식품 생산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제품군

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 식품 벤처기업들이 높은 초기 투자비 없이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국내 기능성 식품 산업의 기반이 보다 탄탄해질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순창군이 미생물 식품 산업을 기반 100년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며 “미생물 기반 건강기능성 원료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순창에 조성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빈집 활용 ‘복지안전주택’ 운영

빈집 임시 주거시설로 제공 올해 시내권 1곳 시범 운영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재난과 주거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한 남원형 임시 주거 지원사업인 ‘복지안전주택’ 추진에 나섰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 화재 및 자연 재난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고 임시로 지인의 집이나 마을회관에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에 따라 시는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후 재난 피해자나 주거위기가구가 단기간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권역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1호 복지 안전 주택’은 시내권 빈집으로 매입을 완료했고 리모델링을 추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차량 진입과 주차공간 확보, 생활 편의시설 여부 등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대상지를 확대해나

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임시 주거시설의 공실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복지대상자와 주거 취약계층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을 통해 호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또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운영조례』를 제정해 ‘복지안전주택’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의회, 고령친화도시·관광·승강장 관리 제언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

완주군의의회 서남용 의원이 11일 제293회 완주군의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 기반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서 의원은 “완주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스마트 홈 기술 확대 보급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또 이순덕 의원은 “버스승강장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완주군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승강장 전수조



이순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 버스승강장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완주군의의회>

사를 통한 시설 실태 파악, 정기적인 정결관리와 방역 등 일상 유지 관리 강화, 승강장 다기능 공간화, 전담부서의 사후관리 책임 강화 등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유 이수 의원은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완주군 관광정책

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완주군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자체 관광 브랜드도 갖추고 있으나 체류시간과 숙박률은 감소하고 있어 관광 효과가 지역경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귀농 농업창업·정착 자금 지원 확대

귀농창업주택자금 신청 접수

최대 3억 대출지원 심사 선정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이달 10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로 경종 및 축산 분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하우스 및 축사 신축 등을 지원하며,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로 주택구입 및 신축 등을 대출금리 연 2.0%(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인의 농업 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 요건이 완화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 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개별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 기관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은 10일 상반기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순창군>

순창군, 35억 체납액 적극 대응 나선다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강력 징수·새농촌기금 회수 등

순창군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염기남 순창부군수 주재로 열렸으며, 세외수입과 새농촌육성기금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체납 현황과 징수 실적, 향후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순창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15

억 원에 이르며, 특히 올해 들어 구상금과 재산사용료 체납이 눈에 띄게 늘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새농촌육성기금 미상환액도 20억 원을 넘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할 예정이다. 또한 새농촌육성기금 미상환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의회,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이주갑의원 대표 발의 채택

“효 정신 국가차원 장려해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어버이날은 1973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있으나 어린이날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어서, 많은 국민이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 78%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완주군의의회 이주갑 의원이 11일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인 ‘효’ 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

하고, 핵가족화·개인주의 확산으로 약화된 가족 간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 사상 국가 장려 정책 강화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절차 조속 추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휴일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을 요구했다.

완주군의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전북도 및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식 송부해 입법 추진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건설링

3개 기업 선정 운영 전반 지원

순창군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25년 사회적경제 건설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기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

회적경제기업으로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예비 기업이다.

총 3개 기업을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조금 90%, 자부담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경영진단, 홍보 및 마케팅, 세무·노무 자문, 공공조달 참여 전략 등이 포함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농업도 안전이 먼저” 온열질환 예방 활동 총력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계획을 수립한 완주군이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교육·홍보·캠페인 등 사전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달 초부터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응급조치 방법 등을 교육·홍보하고 있다.

6월 첫 주에는 7개 마을을 돌며 9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진행했으며, 리플릿을 활용한 이론과 안전보조구 보급을 통한 실천 독려를 병행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여름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섭취, 직사광선이 없는 그늘에서 휴식하기, 낮 시간대(12시~17시) 농작업 중단 등 온열질환 3대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은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직접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농촌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 등 추진으로 안전한 농촌일터를 조성 중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보건소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남원시보건소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7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성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병이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면 인유두종바이러스(HPV)로 유발되는 자궁경부암, 항문생식기암 등의 주요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갖출 수 있어 암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12~17세(2007~2013년생) 여성 청소년 및 △18~26세(1998~2006년생) 저소득층 여성이다. 접종 백신은 HPV4가 백신으로 첫 접종 나이에 따라 접종 횟수가 달라진다. 15세 이전 첫 접종 시 총 2회 접종, 15세 이후 첫 접종 시 총 3회 접종을 받게 된다.

예방접종을 원하는 대상자는 보건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LH삼봉사회복지관 수강생

수채 캘리 엽서로 희망 전해

완주군 삼봉지구 단지 내에 있는 LH삼봉사회복지관 수강생들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LH삼봉사회복지관 2025년 상반기 프로그램 중 수채 캘리그라피 수업을 수료한 수강생 20명이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홀몸 가정을 찾아 용기와 희망을 주는 문구와 그림이 담긴 엽서를 전달한다.

수채 캘리그라피는 수성펜과 붓펜을 이용한 수업으로 완주군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자신감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LH삼봉사회복지관은 2021년 임시개관을 시작으로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완주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업 판촉 프로모션 지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남원시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원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 전라북도 주관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촉프로모션 활동을 희망하는 22개 내외 기업을 선발해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다채널 연계 또는 박람회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부착상품 제거후
타 재질 분리배출**

〈一事一言〉



3대 특검법 의결 - 정의의 문이 열렸다

김관준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중대한 이정표로 기록될 만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출근 거부권에 막혀 좌초됐던 이 법안들이 드디어 국무회의 문턱을 넘고 공포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 정권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제기됐던 중대한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열리게 됐다.

이번 결정은 단지 법률의 통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굵아 있던 국가 시스템의 상처를 도려내고, 억눌린 정의와 진실을 회복하려는 헌정 질서 복원의 시도이며, 정치적 권력을 감시하려는 국민 주권의 실질적 발현이기도 하다. 그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외쳤던 "진실은 왜 가려지는가", "권력은 죄를 덮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제 국가는 정식 절차를 밟아 답해야 할 시간이다.

이번에 의결된 3대 특검법은 국민이 지난 6·3 대선을 통해 분명히 표출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결과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각, 군·정보기관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비상계엄 사건을 정조준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혹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행위이며,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인(私人)의 지위를 앞세워 권력을 사유화했는지에 대한 수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취임 전후의 각종 비선 외교 의혹, 무속인과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정황은 이미 언론과 국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졌다. 검찰은 반복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거나 수사를 지연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특검을 통해 권력형 부패와 사적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대통령실의 도덕성과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병영 내 인권과 공권력의 중립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해병대 수사 책임자였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외압을 폭로하며 군검찰과 갈등을 빚은 사건은, 국민들에게 군의 자율성과 수사 독립성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줬다. 이번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군사 조직 내 정의 실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 특검법들은 이전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

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번번이 저지했다. 국회의 입법 권한이 대통령 1인의 결정으로 무력화되던 모습은 헌법적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됐다. 이는 곧 권력이 스스로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권력형 의혹에 대해 국민이 직접 확인할 길을 봉쇄하는 처사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왜곡된 통치 구조를 바로잡고, 국회의 입법 결과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극히 상식적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특검 제도는 종종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이번만큼은 국민적 감시와 요구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정당성을 함께 확보해야 할 필요가 크다. 추천 과정의 투명성, 수사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 보장, 정치권의 외압 차단 등 실질적 제도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치 보복은 권력을 잡은 자가 무고한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로 혐의를 조작하고 권력을 남용할 때 발생한다. 이번 특검은 그 반대다. 오히려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자들

이 법 위에 존재했던 현실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란 권력의 경계를 법이 정하고, 그 경계를 넘었을 때는 누구든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전현직 대통령이든 대통령 배우자든,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다. 6·3 대선에서 다수의 국민이 선택한 것은 '권력의 남용에 대한 심판'이자, '정의의 회복'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뜻을 제대로 읽고, 그 첫걸음을 3대 특검법 공포로 시작한 것은 의미심장한 출발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힌 대로 이는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특검이 법과 증거에 기반해 철저하게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이름으로 위임받은 권력의 책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길이다.

이번 3대 특검법의 의결은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도래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다. 정치적 의혹이 아닌 법적 진실을 가리는 수단으로서 특검이 기능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 있게 협조해야 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리게 된 이들 특검의 문이 왜곡된 사법 정의를 통한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전북 대선공약, 적시(適時)에 차질 없이 이행돼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선에서 제시된 전북 관련 공약들이 착실히 추진돼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과거 수많은 정부가 대선 공약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최근 '제21대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를 직접 주재하며 도정이 대통령 공약 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전북의 7대 광역공약과 14개 시·군 단위의 78개 사업에 대한 이행 전략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각 부서가 추진 중인 법률 제·개정, 제도 개선, 정부 계획 반영 등 다양한 실천 과제들에 대한 이행 가능성과 정비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무엇보다 전북도는 정책공약과 연계된 국가적 과업이 큰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건의 활동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실국별 핵심 자료를 정비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연계를 통해 정치·행정 양측의 협업 체계를 마련한 점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나아가 타 시도와 경쟁이 예상되는 공약에 대해서도 전북만의 차별화된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과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전북연구원과 협력

해 중장기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실국 중심의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러한 기반 위에 추진되는 공약들은 RE100 국가산업단지, AI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첨단 의료·농생명 산업 육성 등 전북의 미래 산업구조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 과업효과 역시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강조한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와 '문화산업 중심지로서 전북의 성장 가능성' 또한 단순한 수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의지가 실질적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려면, 전북도의 계획이 중앙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예산과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정과 정치권,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약 이행의 속도와 질을 높여야 한다.

전북은 이번 대선공약을 실현함으로써 그동안 낙후 지역이라는 굴레를 벗고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제 계획과 구호에서 머무름 때가 아니다. 구체적인 실행과 가시적 성과가 요구된다.

전북도는 끝까지 공약 이행을 추구하고, 중간 점검과 보완을 반복하며 중앙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정부 역시 전북의 이러한 노력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되는 공약', '성과로 이어지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 전북 발전을 위한 이 절박한 기회가 다시는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문화재열전



내소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물, 목조, 불상
-지정일- 2018년 3월 9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뉴스 1974-444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지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연수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저녁 / 송기원

새의 그림자가
길게 끌고 가는 것은
누구일까

땅거미가 야금야금
값아 먹는 것은
무엇일까

붉은 옷의 승려가
사는 서녘에서는
마지막 시체가
연기를 피워 올리고

떠난다거나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이미 먼 세상의 일이다

서른세 번,
망자를 거두는 종이 울리면
어렵사리
네가 붙잡은
나마저 사라진다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4년 단편소설 '경외성서'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회복기의 노래'가 동아일보 신

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4차례 옥고를 치렀다. 소설 '처자식'과 '아름다운 얼굴', 시집 '그대는 언제나 밖에', 수필집 '해남

망끝에 가고 싶다'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제2회 신동엽창작기금, 제6회 김동리문학상, 제11회 대산문학상 소설부문 등을 수상했다.

믿을 수 있는 뉴스 전북의 中心에서



임실 옥정호 붕어섬생태공원 국민관광지 뿔뿔다!



운종리 일원·붕어섬 작약·꽃양귀비 만개 절정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에 위치한 붕어섬생태공원. 이곳에 출렁다리가 연결되고 계절별 꽃밭이 조성되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 일약 국민관광지로 부상했다.

한마디로 유료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관광객이 방문해 효자노릇하고 있다.

현재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일대가 5~6월을 맞아 화려한 작약과 붉은 꽃양귀비로 뒤덮이며 아름다운 장관을 선사,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꽃들이 만개하면서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은 전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뽐냈다.

사계절 경관 꽃밭이 조성된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은 3월 개장 이후 5월까지 유료 관광객만 20만명이 다녀갔고, 주말에는 평균 7000~80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역대급 인기를 끌고 있다.

예년 같으면 가을에 국화꽃과 구절초가 필 무렵에 평균 8000여명 안팎의 관광객이 찾았지만, 올해는 봄부터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수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최고의 관광명소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4일에는 황금연휴를 맞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 이후 단일 기준 최고인 9200여명이 찾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

다.

붕어섬 생태공원에 식재된 24,000본(6,000㎡), 운종리 작약밭에 조성된 30,000본(7,200㎡)의 작약은 5월 초순 한두 송이씩 피어나기 시작해 5월 말 만개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화려함은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특히, 섬진강 다목적댐으로 조성된 인공호수인 옥정호를 배경으로 한 작약꽃밭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절경으로 손꼽히며, 촬영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작약에 이어 붉게 피어난 꽃양귀비도 봄의 붕어섬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붕어섬 생태공원과 요산공원 일대 12,000㎡ 규모의 꽃양귀비밭은 바람에 흔들리며 붉은 물결이 출렁이는 듯한 풍

경을 연출, 태양 아래 더욱 선명하고 강렬한 색감을 뽐내며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붕어섬 생태공원은 사계절 내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 봄에는 작약과 꽃양귀비뿐 아니라 알리움, 마가

렛, 델피늄, 이소토마 등 다양한 초화류가 화단과 화분 곳곳에 식재되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봄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붕어섬 생태공원의 호수를 에워싸고 알록달록 화려하게 피어

난 작약꽃과 붉은 꽃양귀비가 많은 관광객을 매료시켰다"며 "가족과 연인, 지인, 이웃들과 오셔서 아름다운 호수인 옥정호를 둘러싼 봄꽃들의 향연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문화공연 말씀강연 체험부스

삶과 평화의 교차로

Ⅰ 일시: 2025년 6월 14일 (토) 14:00
Ⅰ 장소: 전주시 덕진구 유상2길 11 신천지예수교회

